

한문불전 교육기관 불교서울전문강당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개명

무비스님 등 대강백 3월부터 강의...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한문불전 전문교육기관인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이 오는 3월 개원한다.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불교서울전문강당(이하 전문강당)을 전환한 것으로, 선어록, 대승경전 등 한문불전을 심도 깊게 연관하는 교육기관이다. 교과과정은 2년이며, 스님들이 참여해 도심에서 전통강원 교육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 스님들 사이에 공부바람을 일으켰다. 출제가 구분 없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유일의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문강당이 처음 개원했을 때는 불교계 내에 출가자 재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이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없던 탓에, 공부를 희망하는 스님은 대학원 진학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재교육 시설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 스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조계종 교육원 부설로 '서울불교전문강당'이 설립됐다.

당시 교육원장이었던 무비스님과 전현직 강주 스님들이 주축이 돼 원전 강의를 시작했다. 종단에 내로라하는 강백들이 강사로 참여했고, 스님은 물론 일반 불자들도 공부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다. 1기 교육을 끝낸 2005년에는 '불교서울전문강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과목도 일부 수정해 현재 4기까지 교육을 완료했다. 오는 2월 예정된 4기 졸업생을 포함해 200여 명이 전문강당을 졸업했다.

전문강당의 교육 열기는 졸업 후에도 이어졌다. 기수별로 모임을 조직해 지금까지 매일 한두차례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전문강당 졸업생으로 구성된 불교경전연구회가 대표적이다. 경전연구회는 통광스님을 교수로 (선문활요) 강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6일 종강을 앞두고 있다. 1기의 경우 각성스님을 법사로 경전공부를 하고 있으며, 2기도 지안스님으로부터 경전강의를 듣고 있다. 면학 분위기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돼 무비스님을 교수로 한 부산의 문수경전연구회 창립으로까지 이어졌다.

1기 졸업생인 범경스님은 "수도권 지역 스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줬고 공부를 하겠다는 열망이 시너지가 된 것 같다"며 "2년 교육과정은 많은 경전을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데 공감할 졸업생들이 주축이 돼 경전연구회를 시작해 지금까지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3월 개원할 대학원에는 교수사로 종단을 대표하는 강백들이 대거 참여한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을 비롯해 전 교육원장 무비스님, 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스님, 화엄학 연구원장 각성스님, 금강선원장 해거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스님 등이 (도서) (서장) (선가귀감)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화엄경)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출가자 외에도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거나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는 청강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관련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합격자는 2월11일 발표되고, 입학식은 3월3일이다. 스님의 경우 졸업자에 한해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이 인정된다.

백양사 종회의원에
만당·의연스님 '당선'

제18교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결과, 만당스님과 의연스님이 당선됐다.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일스님)가 지난 17일 실시한 백양사 재선거 결과, 53표를 얻은 만당스님(영광 불갑사)과 47표를 얻은 의연스님이 당선됐다. 혜용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원광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佛心으로 나라 지켜달라”

총무원장 스님, 군불총 임원진 예방자리서 당부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과 손수태 국군예비역불자회장 등 군불교단체 임원진들이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최용림 군불총 회장(국방부 특별검열단장, 육군 중장)은 군 작전 능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예불을 올리고 스님뜻지 않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반기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재호 기자

군종교구와 협의해 올해 육해공군부대 방문의사 밝혀

은 열불 실력을 갖춘 만큼 신심이 높으신 불자"라고 소개한 뒤 "총무원장 스님께서 군작전능력과 신심이 높으신 군장성 불자들을 격려해주신다면 군포교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심이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며 군장성 불자를 격려했다.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군인은 사기를 생명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군부대를 방문해 군장병을 격려해주시면 나라지키는 기"이라며 군장병 위로방문을 요청

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종교구와 협의해 올해동안 육해공군부대를 한차례씩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포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불교지도자포럼을 준비중"이라며 "예비역 장군분들을 외외신장으로 모시려는 만큼 많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손수태 국군예비역불자회장은 "예비역 불자들도 올 한해동안 군포교에 앞장서겠다"고 합장인사했다.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새해인사의 의미로 난을 선물했으

며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선물을 대신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불교단체 임원진들에게 향료와 달력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용림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을 비롯해 박대섭 소장, 정호섭 소장, 임응순 소장, 김성수 대령 등 국군불교총신도회 임원진과 손수태 국군예비역불자회장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자문위원 임춘민 예비역 대장, 조남진 예비역 소장, 전인구 예비역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과 부교구장 계성스님 등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 구성

사찰간 교류...위원장에 성웅스님 선출

템플스테이 운영 활성화와 운영 사찰 간의 의견을 수렴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스님)은 지난 1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회의를 열고 자문기구 구성을 합의하고, 자문위원장에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을, 간사로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을 선임했다.

자문위원회는 연2회 정기회의를 열고 사찰간 의견 교류, 사찰과 불교문화사업단 사이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템플스테이 사업의 방향에 관한 사항 △템플스테이 주요 사업(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력 양성, 홍보 등)에 대한 자문 △운영사찰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월정사 주지 정남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낙산사 주지 무문스님, 백담사 주지 삼조스님, 부석사 주지 주경스님, 골굴사 주지 적운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활동하게 된다.

단장 정만스님은 "지난해 템플스테이운영사찰 주지회의에서 협의의 구성이 발의돼 교구본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한국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족문화 수호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2011년 템플스테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사업비중 축소 및 국고지원 중심의 사업방식 탈피 △다양한 불교문화 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사업단의 위상 재정립 및 자생력 강화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한 연계 교육사업 및 연구 컨설팅 기능의 강화 등을 올해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 스님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2011년 운영방향을 확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백양사 종회의원에 만당·의연스님 '당선'

제18교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결과, 만당스님과 의연스님이 당선됐다.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일스님)가 지난 17일 실시한 백양사 재선거 결과, 53표를 얻은 만당스님(영광 불갑사)과 47표를 얻은 의연스님이 당선됐다.

혜용스님(서울 광문사)과 원광스님(나주 심향사)은 각각 39표와 16표를 획득해 낙선했다. 한편 이날 재선거에는 재직 189명 가운데 158명이 참석했으며, 투표결과 유효표 155표,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다.

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현장에서

민생과 전통문화를 외면한 국가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촉발된 민족문화수호 활동이 시작된 지 40일을 넘어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족문화 수호 활동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 민족문화 수호 활동 초기에는 템플스테이사업 예산 삭감을 촉매제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부재와 종교편향을 경험하는데 집중했다. 지금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한 그동안의 불교계의 행보를 참회하고 거듭나기 위해 자기 변화와 쇄신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 스스로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자며 "180도 확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

지금은 결집할 때다

선 5도만 바뀌보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민족문화수호 활동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중무지침을 통해 본말사의 참여를 독려했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을 경책하고 조계종과 행보를 같이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추앙받는 법전 종정에게까지 나서 신년교사로 민족문화 수호와 불교의 쇄신을 당부했으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총무원들은 아침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배 100일 정진 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이같은 결연한 분위기가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듯하다. 지역별, 교구본사별 민족문화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대회

를 열 계획이지만 범어사를 비롯해 몇 개 사찰과 단체에서 정부 여당 인사를 초청한 행사를 열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을 당혹케 했다. 또한 천대종 총무원장 정만스님은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족문화 수호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독자적인 행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눈총을 산 바 있다.

한국불교의 하나된 힘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큰 지혜로 큰 세상을 열어가

더 큰 세상을 이끄는 불교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더 큰 지혜를 깨우치십시오



2011학년도 제13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 모집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지원자격
• 각 불교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
• 불교 신도로서 공·사기업체의 회장·사장·임원
• 불교 신도로서 국회의원 등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 불교 신도로서 전문직 종사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구술고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승적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일정 : 2011년 2월 11일(금)까지
• 장소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참고 : 원서 접수 후 면접, 전원 총원서 조기 마감
-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 총 16 주 수업 [2011. 3. 9(수) ~ 6. 15(수)]
• 매주 수요일 19:00 ~ 20:10 제1강의 / 20:20 ~ 21:30 제2강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3098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2011학년도

수덕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教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선교(禪敎)를 겸비하신 경허 큰스님의 법맥이 살아 숨 쉬는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200여 명의 山中 대중과 함께 정진할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 _ 1학년(치문) : 00명 / 2학년(사집) : 0명 / 3학년(사교) : 0명 / 4학년(대교) : 0명
- ☞ 제출서류 _ 신입 : (1)입방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서류 출력 가능) 1통
(2)주민등록초본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증명사진 4매
(5)승려증(행차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1통
편입 : 전(前)학년도 수료증(또는 전학증), 학적부 추가
- ☞ 접수기간 _ 2011년 3월 18일(금요일)까지 서류접수, 당일 오후 4시까지 입방 면 접 : 3월 19일(토요일) 오후 2시
- ☞ 준비물 _ 만의, 장삼, 발우
- ☞ 전 형 _ 서류심사, 면접
- ☞ 문 의 처 _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수덕사 중무소
전화 : 041)337-6565, 0174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선지종찰 덕승총림 수덕사승가대학장